

[이규태코너] 차이나타운 (조선일보 1999.09.13)

[이규태코너] 차이나타운 (조선일보 1999.09.13)

동남아에는 5200 만명의 화교들이 서로 연계하여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만약 이 경제망에서 소외되거나 도외시하면 동남-동북 아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활동에서 '왕따'당하게 된다. 이 경제 프로젝트의 젓줄을 물려줄 입이나 뿌리 내릴 땅이 한국 안에 없다. 이것이 차이나타운 재건의 명분 가운데 하나다. 죽의 장막이 걷히면서 대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왕성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한데 외국 사례를 보면, 진출기업들이 자국의 화교와 손을 잡거나 가운데 든 경우만은 거의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재건 명분의 둘째 이유다. 또 외국에 투자하려는 구미나 일본 등 외국 기업인들이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그 나라의 화교들 장사가 잘되고 있느냐 여부로 따져본다는 것이 상식이 돼있다는 점이다. 차이나타운이 사라지고 없음으로써 받는 간접손실이 그 재건의 셋째 명분이다.

서울에는 임오군란 진압을 명분으로 진주한 청나라 병사를 따라 들어와 그들 비호 아래 수표교 부근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차이나타운의 시초다. 빈곤한 홀아비들로 뚝섬에 채소갈아 파는 채소장사와 전당포를 주업으로 했는데 부녀자를 전당잡은 후 각시 삼아 정착했다. 갑신정변 때 역시 진압명분으로 원세개(원세개)를 따라 온 화교들은 소공동, 지금 프라자호텔 인근과 명동 입구 중국대사관 인근에 차이나타운을 형성, 외래품 비단 철재 점포와 음식점을 차렸다. 60년대만 해도 소공동의 3분의

1 을 차이나 타운이 차지했고 20 만을 헤아리던 화교들이 신분이나 재산권, 교육상 제한, 세금 상업상 불이익에 한국인의 배타 의식이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국을 등지게 하여 현재 1 만 7000 명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유지들이 나서서 정보산업을 근간으로 한 신 차이나 타운 재건에 박차를 가해 그들 연고지인 뚝섬 배추 밭에 8 만평의 후보지도 마련했다 한다. 병자호란 이래 중국인과 연고가 맥락된 뚝섬이다. /kyoutaelee@chosun.com